

인센티브 줄줄이 확보 '쾌거'

임실군,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우수 선정 등 거둬

임실군이 최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인센티브를 줄줄이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은 지난 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북도가 발표한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군단위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시책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11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5대 국정목표 200여개의 국정과제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이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임실군은 91개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북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2018년(2017년 실적)평가에서도 시군 노력도 부문 1위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3,250만원의 인센티브를 따냈다.

군은 특히 정량(91개)과 정성(28개)으로 나뉘어 평가되는 가운데 '가' 등급을 3개나 받았으며, 업무적 노력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임실군은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J-VPS(전라북도 합동평가 시스템)를 매일 입력 관리해 왔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시군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부군수를 주제로 한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관련지표를 수시로 점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소속 박해욱(전 합동평가 위원) 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등 워크숍 및 컨설팅을 통

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평가는 임실군청 전 직원의 열정과 책임감, 협력 등으로 빛어낸 값진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노력도 부문에서 1위를 석권한 것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까지 흐트러짐없는 연속행정과 안정적인 군정운영에 모두가 노력한 덕이다.

군은 두 차례 평가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며 확보한 1억여원의 인센티브를 군정발전에 최대한 기여하고, 대민 서비스 강화 및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 군수는 "군정 전반에 대해 전 직원이 강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협업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각종 평가 대응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평이근민(平易近民) 행정을 위해 나섰다.

친절역량 강화 등 종합추진계획 수립

남원시는 '매우 친절함 남원시청 만들기'

남원시는 편안하고 친절함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평이근민(平易近民) 행정을 위해 '매우 친절함 남원시청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매우 친절함 남원시청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품격 높은 친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친절행정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친절분위기 조성, 친절역량 강화, 친절동기 부여, 직원 보호제도 등 4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친절시책은 33개 실과소, 23개 읍면동에서 각각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총무과는 '친절은 당신의 목소리로부터', 홍보전산과 남원의 목소리! 시민을 웃게한다. 보절면 '내 집처럼 편안한 보절카페' 등 부서별로 독특한 아이디어로 시민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맞이할 예정이다.

민원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읍면동 직원을 위해 강사가 직접 방문해 문제점 개선과 친절교육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현장 코칭'을 시행해 친절도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원주 시장은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스하며, 품격 높은 친절행정을 실천해 살기 좋은 남원,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조성 순항... 2021년 완공 목표

순창군이 세계최고 발효도시로 성장을 위한 발효테마파크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발효테마파크는 순창군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성장동력인 발효분야의 선점을 위해 교두보가 될 전초기지다. 지난해 4월 기반공사가 착공에 들어간 발효테마파크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합쳐 총 1,0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현재 기반조성 공사 4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건축실제 용역사 선정도 지난해 완료하고, 올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순창읍 백산리 580번지 일원 12만, 589㎡의 부지에 조성될 테마파크는 발효테라피센터, 세계 발효마을 체험농장, 100세 다년생식물원, 추억의 식품거리, 누룩체험관,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발효미생물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물이 완공되면 발효산업과



순창군이 세계최고 발효도시로 발효테마파크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진은 도시민과 함께하는 순창전통장 담그기 체험.

관광을 융합한 한국 전통발효문화산업 거점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발효테마파크는 순창민속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순창 전통장류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이 4차로 새롭게 개통하면서 전남권 관광객 유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발효테마파크와 함께 조성될 장내유

용미생물은행도 주목할 사업 중 하나다.

장내유용미생물은행은 제대혈과 같이 가족단위 태변과 건강한 대변을 보관했다가 장내 미생물 균종이 깨졌을 때 가족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관련 분야 세계시장 규모가 170조 이상 추정되는 등 미래 전망이 밝아 순창군이 공을 들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신기마을에서는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남원시 보절면, 느티나무 당산제 개최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관) 진기리 신기마을에서는 7일 오전 10시부터 천연기념물 281호인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당산제에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기해년 한해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이곳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되고 높이가 23m, 가슴높이의 둘레가 8.25m, 뿌리근처의

둘레가 13.5m에 이른다.

조선 세조(1455~1468년) 힘이 장사인 우공(寓貢)이라는 무관(武官)이 뒷산에서 나무를 뽑아 마을 앞에 심고 잘 보존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 느티나무를 역사적·생물학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고품질 쌀 생산 양질 상토 지원

남원시가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올해도 전 농가에 벼 상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사업비 14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농가에 50만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상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벼 재배 전 농가이나 재배면적

100㎡이하 농가와 관외출입 경작지는 제외된다. 상토는 사업 신청농가의 희망에 따라 경량, 준중량, 중량, 입상, 유기농, 매트로 구분해 지원한다.

친환경벼 재배농가는 유기농상토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는 2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뒤 하순부터 농가 및 공동육묘장에 육묘용

상토를 벼씨 침종 이전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상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농협, 벼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수용·보완하여 상토 추진 지침을 협의했으며, 12월에는 지역농협 주관으로 입찰을 통해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 농가가 선호하는 상토 및 업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편리한 금연상담과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열압,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상담과 금연행동요법 지도,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금연을 계획하고 있거나 도전하고 싶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620-7966)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특히,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비흡연 직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직장으로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원하는 기업체, 관공서에서는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설명절

성묘객 6만 3000여 명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올해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안전하게 지냈다.

이번 5일 연휴에도 임실호국원에 다녀간 성묘객은 차량 1만2,600대에 6만 3,000여명이나 된다.

주차 시설이 적어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앞에 새해 희망과 꿈,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부모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해마다 안장되는 국가유공자분이 2,000여분 되다보니 현재는 임실호국원에 안장된 유공자 분도 2만6,500여분이나 되어 찾아오시는 유가족 또한 많이 늘었다.

특히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무연고로 관리하는 94위의 국가유공자가 있다.

묘역 안장된 53위는 조화를 교체하고, 총령당에 안치된 38위는 깨끗하게 청소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감사의 표시로 명절이 쓸쓸하지 않게 하였다.

윤명석 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참배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열린 국립묘지, 효와 충이 함께하는 따뜻한 국립묘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